‘보시 · 공양’으로 백중 참의미 되살린다

전국사찰 백중기도 입재
8월 15일 회향 · 법회 예정

총림, 본사 특색있는 법회 개최
나눔문화 확산하는 행사 진행
승보공양 · 공승법회도 눈길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백중기도입재를 맞아 조계사 신도들이 영가 천도와 중생 구제를 서원하고 있다.

전국사찰이 백중을 맞아 다양한 행사로 분주하다. 조계종 8대 총림을 비롯해 전국 교구본사와 사찰들에서는 백중을 앞두고 백중 기도 입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선지식 법회 등 법공양을 비롯해 공승재 등도 진행한다.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부처님 법과 양식을 베푸는 백중의 참 의미를 되살리는 행사다.

최근에는 지역 축제로서 다양한 백중행사도 열리고 있다. 백중 회향에 맞춰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거나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행사도 열린다.

선지식 법회로 법공양 활발

팔공총림 **대구 동화사**(주지 효광)는 백중을 맞아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법사로 백중49일 기도를 진행한다. 6월 28일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을 법사로 입재가 이뤄졌으며, 7월 4일 원로의원 지성 스님, 7월 11일 임휴사 회주 무공 스님, 7월 18일 동화사 前 주지 성문 스님, 7월 21일 보현사 회주 자광 스님, 8월 1일 동화사 前 주지 허운 스님, 8월 8일 팔공총림 유나 지한 스님을 지도법사로 6재까지 진행된다. 이어 8월 11일 108순례와 백중방생법회가 진행되며, 8월 15일 영가봉송을 하는 회향법회가 종정 진제 스님을 법사로 진행된다. 회향법회 후에는 동화사 다비장에서 구품연화대 다비식도 봉행된다.

금정총림 **부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를 연다. 5월 22일 입재한 이후 범어사 설법전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진행되고 있으며, 8월 18일까지 이어진다.

7월 2일 범어사 부주지 범산 스님, 7월 9일 계명암 주지 선재 스님, 7월 16일 동화사 금당선원 유나 지환 스님, 7월 23일 성주사 회주 흥교 스님, 7월 30일 법륜사 회주 선래 스님, 8월 6일 정암사 주지 상운 스님, 8월 13일 범어사 교수사 지오 스님, 8월 18일 회향법회 금정총림 방장 지유 스님의 법문이 진행된다.

8월 15일까지 열리는 영축총림 **양산 통도사**(주지 현문) 백중 49재 기도에도 스님들이 대거 참여해 설법을 진행한다.

6월 28일과 30일에는 대구 보현사 회주 자광 스님과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이 법사로 설법했으며, 7월 7일 2재 통도사 서축암 감원 우진 스님, 7월 14일 통도사 포교국장 양관 스님, 7월 21일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 7월 28일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8월 4일 통도사 강주 인해 스님, 8월 15일 회향법회는 영축총림 방장 성파 스님이 진행한다.

이와 함께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인천불교회관 연화사, 부산 홍법사 등 도심 사찰에서도 제방 스님을 초청하여 선지식 법회를 회향일인 8월 15일까지 매주 연다.

보시 · 승보공양 등 백중문화 전개

도심 기도와 수행 사찰에서도 다양한 백중행사가 열린다. 특히 승보공양과 보시 바라밀 등 백중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6월 28일 백중 입재와 함께 조계종이 진행하는 백만원력결집 불사에 적극 동참하는 백만원력결집 보시바라밀을 시작했다.

7월 4일 백중 초재부터 8월 15일 7재까지 서울 북부, 동부, 서부, 포교본부 등 다양한 신도조직에서 백만원력 결집 동참을 위한 보시운동이 전개된다. 조계사는 백만원력결집 불사에 10만 구좌를 약정했으며, 먼저 6월 28일 진행돈 백중 입재에서는 조계사 대중 스님들이 8520구좌를 약정하는 전달식이 진행됐다.

서울 국제선센터(주지 법원)도 6월 28일 초재부터 8월 15일 7재까지 진행된다. 7월 21일 혜민스님 초청법회가 진행되며, 회향일인 8월 15일에는 큰 법당에서 ‘우란분절 49일 기도 회향 및 승보공양 법회’가 봉행된다.

용인 법륜사(주지 현암)는 5월 19일 자비도량참법기도로 백중기도에 입재했다. 8월 15일 회향시까지 108배를 통한 참회기도가 진행되며, 회향일에는 수행정진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공승법회가 함께 진행된다.

한편, 불교의 5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백중은 조상과 부모 등의 영가 천도를 위해 기도를 함과 동시에 백중의 유래가 된 효 정신을 실천하는 날이다. 이와 함께 일체 중생의 극락왕생도 함께 기원하며 중생 구제를 위한 보시와 나눔활동도 펼친다. 불교계에서는 음력 7월 15일 다양한 음식과 가사 등을 지어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기도 한다.

불교상담개발원, 자살예방 프로그램 공모

대상 2000만원 상금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선업)이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몸 · 마음 · 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 공모는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생명존중 · 자살예방 ‘몸 · 마음 · 쉼’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번 공모 프로그램은 유가족, 자살시도자,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명상을 활용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으로 명상지도사, 자살예방 강사 및 교육생, 자살예방에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불교상담개발원 홈페이지(www.kbcd.org)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참가신청서와 프로그램 설명서, 워크북 등이다. 프로그램 설명서와 워크북은 8부 제본해 발송하고 사전사후 효과 검증을 위한 측정도구도 함께 동봉하면 된다. 등기우편과 이메일(jabi7378@naver.com)로 모두 접수해야 한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몸 · 마음 · 쉼 자살예방 명상프로그램 워크북으로 제작, 배포된다. 이와 함께 불교상담개발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운영을 위한 홍보 및 전문가의 자문, 강사비 등도 지원된다. 대상은 2000만원, 최우수상 1000만원, 우수상에는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수상자는 7월29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은 “이번 공모를 통해 자살 위험군 대상자를 비롯해 유가족 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불교계 프로그램이 탄생하길 기대한다”며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과 김대환 (주)로드FC 대표가 6월 26일 열린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격투가들도 ‘생명나눔운동’ 동참한다

생명나눔 · 로드FC MOU 체결
김남명 위원 ‘명예 전당’ 헌액

국내 최대 격투기 단체인 로드FC가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와 (주)로드FC(대표 김대환)는 6월 26일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 이사 명신 스님을 비롯해 김대환 로드FC 대표, 홍보대사 배우 김하영 씨, 정현숙 생명나눔 후원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생명나눔과 로드FC는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로드FC는 △선수 · 회원대상 장기기증 희망등록 홍보 △관객 대상 장기기증 희망등록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생명나눔은 △법인 소식지 ‘행복한 빈손’을 통한 로드FC 홍보 △로드FC 선수 및 회원 대상 장기기증 홍보 교육 △로드FC 요청 시 심의 통한 환자 치료비 · 안구 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은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나누기 위한 로드FC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생명나눔문화가 더욱 널리 알려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생명나눔은 김남명 홍보위원을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제포교사회, 템플스테이로 외국인 포교

6월 14일 벨기에 대사
1차 템플스테이 참가

조계종 포교원 산하 국제포교사회(회장 김성림)가 연등회 참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를 추진한다. 국제포교사회는 해마다 연등축제 기간 동안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들, 주한 미군 가족, 외국인 스님들과 관광객을 비롯한 전 세계의 외국인을 초청해 연등행렬 관람을 이끄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 2017년부터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글로벌 서포터즈’의 교육도 담당하고 있다.

국제포교사회는 연등회를 통해 맺어진 외국인들과의 인연을 국제포교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먼저 6월 14일 서울 진관사에서 1차 외국인 템플스테이가 ‘템플라이프’ 형식으로 진행됐다.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이 벨기에 대사에게 단주를 달아주고 있다.

1차 외국인 템플스테이에서는 올해 3월 벨기에 국빈 방문 시 마틸드 왕비의 사찰 방문에 동행한 피터 레스쿠이에(Peter Lescouhier) 벨기에 대사를 비롯해 벨기에 대사관 지원 13명이 참가했다.

국제포교사회는 여기서 더나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7월 6~7일 강화 연등국제선원에서 제2차 외국인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노덕현 기자